

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0. 8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9
IV. 국제신인도	11
V. 종합의견	13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I. 일반개황

면적	156만 Km ²	G D P	43억 달러(2009년)
인구	2.67백 만 명(2009년)	1 인 당 GDP	1,654달러(2009년)
정치체제	민주공화제	통화단위	Tugrik(Tug)
대외정책	친서방 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1,437.80(2009년)

-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남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음. 민족의 95%가 몽골족이며 라마교를 주로 신봉하고 있음.
- 1921년 구소련의 지원하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,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 1당 체제를 유지하였음. 1992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였고 경제체제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였음.
- 몽골은 매장량 기준 동 5,500만 톤(세계 2위), 형석 1,200만 톤(세계 3위), 석탄 1,750억 톤(세계 4위) 및 우라늄 6만 3,000톤(세계 14위)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위 자원부국으로서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 ^e	2010 ^f
경제성장률	8.6	10.2	8.9	-1.6	8.6
재정수지 / GDP	3.3	2.8	-4.9	-6.5	-5.0
소비자물가상승률	5.1	9.0	25.1	6.3	6.0

자료: IMF, EIU.

□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세 둔화

- 2008년 상반기에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경기호황, 그리고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및 주요 수출품인 동, 금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, 4분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급락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.3% 포인트 하락한 8.9%를 기록함.
- 2009년에는 캐시미어 등 가축관련 제품가격 하락으로 농목축업이 위축되었고, 금을 제외한 주요 광물 가격급락과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수요감소로 광업분야가 큰 타격을 받아 -1.6%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 - 최대 수출 품목인 동의 가격은 고점인 2008년 7월 톤당 8,414달러에서 2009년 10월 6,288달러로 25.3%하락, 이에 따라 동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41.6%에서 32.9%로 크게 감소함.
- 중국의 지속적인 원자재 수요와 동, 금 가격 상승 및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, 2010년 8.6%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, 장기적으로는 광업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경기부양책, 공공기관 임금인상 및 사회복지 해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

○ 2008년 광업부문 호조에 따른 법인세와 초과이윤세 수입증가 등으로 정부재정 수입이 전년 대비 29%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기록함.

- 이는 공공기관 임금인상,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지출 증대에 기인함.

○ 2009년에 들어서는 광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함. 더욱이 사회보장비 등의 지출증대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어, 몽골 정부가 목표로 하는 GDP 대비 5.0% 보다 큰 6.5%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-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는 각각 전년 대비 38%, 80% 감소하였음.

○ 2010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, IMF 대기성 차관,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지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.5% 포인트 증가한 5.0%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.

- 2009년 3월 국회에서 10억 달러(1조 5,000억 투그릭)규모의 경기부양책(인프라사업 실시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, 수출 촉진, 농업 지원 등)을 결의함.

- 2009년 4월 IMF는 2억 4,000만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승인, 현재까지 2억 1,300만 달러를 집행하였고, ADB, 세계은행, 일본은 총 1억 3,000만 달러를 집행하였음.

□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

○ 정부통계에 의한 실업률이 2009년말 3.7%로 발표되었으나 세계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21~26% 수준으로 실질적인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함.

- 높은 실업률은 흑한과 폭설에 따른 가축 동사로 인한 유목민의 도시유입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.

□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증가와 국제상품 가격하락으로 물가 안정세

- 물가는 2008년 투그릭 가치하락, 수입품 가격상승, 공무원 급여인상 및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25.1%를 기록하였음.
- 2009년에는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증가와 국제상품 가격하락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6.3%를 기록하였음. 2010년에도 전년도의 추세가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.0%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산업기반 부족으로 성장에 한계

- 광업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서 농업 부문 활성화, 제조업 기반 확대, 서비스산업 육성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부진함.
- 특히 제조업은 주로 식품, 광물, 캐시미어 등의 단순 가공업으로 2008년 GDP의 6.1%에 불과함.

□ 광물과 농축산물 등 1차 상품 위주의 수출품으로 대외경제 여건에 민감

- 2009년 기준 광업이 총수출의 88.2%로 수출품목의 대부분이 광물자원에 집중되어 있는 등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부족하여,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광물자원 가격하락 등 외부요인의 변동에 크게 노출됨.
- 수출은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대 중국 비중이 전체의 64.7%, 수입은 연료와 식품의 대 러시아 비중이 34.4% 수준임.
- 열악한 기후여건, 소규모 농작 및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가공업체 부재 등으로 농업발전에 한계가 있음. 곡물 수요의 1/3 정도만 국내생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입 및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음.

□ 열악한 수송인프라

- 광활한 국토, 적은 인구, 광업과 농목축업 위주의 산업으로 철도, 도로 등 수송과 관련한 물류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매장량 기준 동 세계 2위, 석탄 세계 4위의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

- 몽골은 매장량 기준 동 5,500만 톤(세계 2위), 형석 1,200만 톤(세계 3위), 석탄 1,750억 톤(세계 4위) 및 우라늄 6만 3,000톤(세계 14위)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위 자원부국임.
- 내륙국인데다 자원부족으로 개발이 미흡하였으나, 최근 광물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.

※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외국인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약 56%를 차지

□ 러시아와 중국의 거대시장으로 진출용이

- 몽골 에너지(광물)자원의 최대 수요자이자 투자자이기도 한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하여 양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.

다. 정책성과

□ 1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시

- 조속한 경기회복의 일환으로 2009년 3월 인프라 구축, 수출 촉진, 농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함.
- 대규모 경기부양에 필요한 자금은 IMF의 2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등을 통해 이루어짐.

□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등을 위해 금리 등 정책수단 활용

- 2009년 3월 몽골 중앙은행은 투그릭화 가치와 물가를 안정화하고,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금리를 14%로 대폭 인상하였음. 금리인상으로 투그릭화 가치 회복, 물가 상승률 둔화 및 외환보유액 증가 등 거시경제가 안정화됨에 따라,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는 2010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조정하였음.
- 2009년 3월 정책금리는 14%에서 5월 12.75%, 6월 11.50%, 9월 10.00%로 총 4% 포인트 인하되었으며, 2010년 5월 이후 11%를 유지하고 있음.

□ 미진했던 외국인투자 정책 정립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

- 몽골 정부의 지분확대 추진으로 지지부진했던 캐나다 아이반호사(IvanhoeMinesLtd.)와의 오유틀고이 동/금 광산협상이 원자재 가격급락과 경기침체로 2009년 10월 국회가 최종 승인으로 일단락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입뿐만 아니라 광산개발, 수송인프라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.
- 몽골 정부는 전략광산에 대한 탐사를 정부예산으로 진행할 경우 최대 50%, 민간자본으로 할 경우 최대 34%까지 지분 취득이 가능함.
- ※ 이에 따라 현재 오유틀고이 동/금 광산지분은 정부 34%, 아이반호(캐나다) 36%, 리오티토(호주) 30%로 구성
- 최근 오유틀고이 동/금 광산, 타반톨고이 석탄 광산 개발안이 진행중이며, 이 외에도 에데네트(동,몰리브덴), 보로(금), 토모테이(철)광산 등 총15개의 전략광산이 지정되어 광산개발이 추진되고 있음.
- ※ 오유틀고이에는 동과 금이 각각 2,540만 톤, 1,028톤이 매장되어 있고, 타반톨고이에는 석탄 65억 톤이 매장
- 2021년까지 고비지역과 동부지역간, 전략광산들과 기존간선 철도간, 제2간선 철도건설 등 철도라인을 확충할 예정이며, 다수의 도로건설 사업을 통해 향후 몽-중-러간, 몽골의 대도시간 도로가 연결되면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는 등 물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.

- 한편, 정부는 1개의 자유경제지역과 2개의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하고 있는데, 완공 이후 내외국인에 대한 활발한 교역기회 제공,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지향형 산업육성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※ 자유경제지역: 자민우드(Zamiin-Uud), 자유무역지역: 알탄불락(Altanbulag), 차가누르(TsagaaNuur)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 ^f
경 상 수 지	109	132	-809	-312	-920
경 상 수 지 / GDP	3.4	3.4	-15.3	-7.3	-19.6
상 품 수 지	189	-52	-613	-183	-411
수 출	1,545	1,951	2,535	1,830	2,117
수 입	1,357	2,003	3,147	2,013	2,528
외 환 보 유 액	583	802	561	1,218	1,468
총 외 채 잔 액	1,394	1,596	1,601	1,860	2,837
총외채잔액/GDP	45.1	40.9	31.5	48.2	60.4
D. S. R.	2.4	6.1	4.1	4.2	3.2

자료: IFS, EIU.

□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지속

- 몽골은 광물, 캐시미어 등 1차 산품을 수출하고, 연료, 기계설비, 전자부품, 자동차 등 에너지와 자본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.
- 2008년에는 동, 금, 캐시미어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상승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, 석유, 식품 등 주요 수입품의 가격상승, 광업 투자확대에 따른 설비 수입 증가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였음.
-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로 자본재 수입감소가 수출보다 더욱 커서,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각각 1억 8,300만 달러, 3억 1,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7.3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- 상품수지 적자 규모보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큰 것은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로 인한 과실송금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0년 수출과 수입이 다시 증가하고 수출 증가세가 수입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상품수지 적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상수지 적자도 GDP의 19.6%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.

□ 세계 경기침체로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이후 증가세로 전환

- 외국인직접투자(FDI)유입액은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음. 이는 높은 운송비부담, 정책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, 광물자원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광업부문 투자수요가 급증한데 기인함.
- 2008년말 국가별 기준으로 중국(55.7%)이 최대 투자국이고, 다음으로 캐나다(8.3%), 한국(6.2%), 일본(4.2%), 영국(3.4%), 러시아(3.3%), 미국(3.3%)순이며, 업종별로는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56.3%로 압도적임.
-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2009년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액이 전년동기 대비 49.2% 감소하였으나,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광산개발 추진, 투자지분에 대한 규제완화, 인프라건설 확대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: 1억 9,100만 달러(2006년)→3억 6,000만 달러(2007년)→6억 8,300만 달러(2008년)→3억 4,700만 달러(2009년)

□ 외환보유액 증가 및 환율 하락 기대

-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악화로 2008년말 달러당 투그릭화 환율이 1,166투그릭에서 2009년 3월 1,591투그릭까지 치솟고, 외환보유액도 2008년 12월중 수입의 2개월치에 불과한 5억 6,200만 달러까지 감소하였음.
- 그 후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조치, 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의 지원으로 2009년 말에는 환율이 1,438투그릭 수준으로 안정되고, 외환보유액도 12억 9,500만 달러로 증대되었음.

- 2010년에는 국내외 경제 회복전망에 따른 외국인투자 자금유입이 증가하면서 달러당 투그릭화 환율의 상승압력이 완화되어 1,345투그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원조자금 유입으로 인한 총외채잔액 지속적 증가

- 재정수입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여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의 원조자금에 의해 재정이 유지되는 상황이며, 2009년에는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48.2%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.

- ADB, IMF 등의 국제기구는 정부의 경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, 자금지원을 지속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.

- 총외채잔액은 여전히 큰 편이나 대부분 장기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채원리금상환 비율(D.S.R.)이 2009년 4.2%를 기록함.

Ⅲ. 정치 · 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민주당 집권체제로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정치상황 지속

- 2009년 5월 대선에서 국민들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최초로 야당인 민주당의 엘베그도르지(T.Elbegdorj)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. 우려했던 폭력사태 없이 인민혁명당이 선거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정치적인 진일보로 평가받고 있음.

- 한편, 2009년 10월에는 몽골인민혁명당 산자바야르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임하여, 수흐바타르 바트볼드(Sukhbaatar Batbold) 전 외무부장관이 총리로 취임하였음. 예상치 못한 총리교체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었으나, 현재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유목인구의 도시이주와 실업증대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 잠재

- 극심한 한파와 흑한으로 2009년 말~2010년 초 사이에 수백만의 가축이 동사. 이로 인해 유목인구의 67%가 피해를 입음에 따라 이들 유목인구의 일부가 극빈층으로 전락함.
- 대부분의 피해가구가 생계수단을 상실하여 2만 명 정도의 유목민이 울란바타르로 이주할 것으로 추정되나, 구직곤란 등으로 빈부격차 확대 및 범죄 증가 등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.

□ 실업률 증가에 의한 소요사태 가능성

- 실업률 증가와 빈곤퇴치 해결을 위한 정책실패로 2006년 4월과 2008년 6월 두 차례 정부의 국정능력에 대한 불만이 시위로 표출되었음.
- 최근 물가가 안정되고 빈곤층에 대한 세금면제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소요 발생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, 실업과 빈부격차 문제는 소요사태 재발 가능성의 잠재요인이라 할 수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실리중심의 외교정책 구사

- 인접국이자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 또한 주요 원조국인 일본, 미국 등을 중국, 러시아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

- 2009년 총외채잔액은 18억 6,000만 달러(GDP 대비 48.2%)로 여전히 큰 편임. 그러나 대부분 장기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외채잔액이 총외채의 9.5% 수준이고, D.S.R.도 4.2% 수준이어 외채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.

2. 국제시장평가

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<표 3>

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수출입은행	D1 (2010. 8)	D1 (2009.12)
OECD	6등급 (2010. 4)	6등급 (2009. 4)
S&P	BB- (2009.11)	BB- (2008.12)
Moody's	B1 (2008. 4)	B1 (2005.12)
Fitch	B (2008. 4)	B (2005.12)

S&P, Moody's 및 Fitch, 신용도등급 전망 상향 조정

- S&P, Moody's 및 Fitch는 2009년 IMF와 원조국가의 지원이후, 물가상승률 둔화, 환율안정, 외환보유액 확충 등 개선되고 있는 경제여건을 반영, 2009년말 등급 조정없이 등급전망을 '부정적'에서 '안정적'으로 상향 조정하였음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국교수립: 1990년 3월 26일(북한과는 1948년 10월 14일)

- 주요협정: 무역협정(1991년),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(1991년), 문화협력협정(1991년), 투자보장협정(1991년), 이중과세방지협약(1993년), 세관분야협력협정(1993년), 에너지·광물자원협력협정(1999년), 관광협력협정(2004년), 신재생 에너지분야 협력협정(2006년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<표 4> 한·몽골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대 몽골	2008	2009	2010.1-5	주요품목
수 출	238,231	166,887	67,699	자동차, 무선통신기기, 기호식품
수 입	31,150	21,479	11,201	금속광물, 비금속광물, 농산물
합 계	269,381	188,366	78,900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2009년 말 기준 교역규모는 1억 8,83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우리나라의 대 몽골 수출은 전년 대비 29.9% 감소한 1억 6,689만 달러, 수입은 전년 대비 31.1% 감소한 2,148만 달러임.
-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, 건설 광산기계, 기호식품, 석유제품, 자동차 부품 등이고, 수입품은 기타금속/비금속광물, 축산가공품, 가죽 등으로 몽골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우리기업의 대 몽골 해외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2010년 3월말 기준 광업을 중심으로 297건, 약 1억 8,415만 달러(투자누계 기준)를 기록하였음.
 - 광업이 총투자금액의 19.7%로 제일 많고,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(15.2%), 부동산업(13.4%), 정보서비스업(8.1%)순임.

VI. 종합 의견

-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4분기 이후, 몽골 경제는 원자재 가격 급락과 수출둔화로 환율 상승, 외환보유액 급감 등 경제가 악화되어 -1.6%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 그러나 최근 주요 수출품인 동, 금 가격상승과 광물자원 수요 증가, 오유틀고이 동/금 광산 투자계약 협상 체결 및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2010년에는 8.6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부실한 재정관리 및 경기침체로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, 취약한 산업기반에 따른 높은 수입의존도로 경상수지도 적자기조임. 한편 열악한 인프라로 풍부한 광물 및 관광자원 등을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.
- 2009년 5월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 또 2009년 10월 갑작스런 총리교체로 국정운영의 차질 가능성이 예상 되었으나, 현재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.

전문연구원 박 종 국 (☎02-3779-6673)
E-mail: parkjk@koreaexim.go.kr